

옥갓튼계집애가적막한드를에웨로히낫타나니
 그를발견한차세상사람들이
 어는어찌한아해나뭇더라
 나는강님드를에서소사낫습니다
 성이무엇이며일음이무엇이나
 나는성명도몰으고아모것도몰읍니다
 그리하니엇씨하야우금까지살어왔느냐
 내가강님드를에소사날째부터
 엇편학조가날너와서
 한날애를쌀어주고한날애를덥허주며
 야광주를물녀주며,그리저리살녀주니
 오날까지무사히살어왔읍니다
 년령은얼마이나,나희도몰읍니다
 이러하니사람사람들이,너는나흔날을몰으니
 오날을나흔날로하야일음을오날이라고하라
 여러백성들에게일음을지여어더
 이리저리덴기다가
 박이왕의어머니백씨부인안테가니
 너는오날이가안이냐,네오날이올시다
 너의부모국을아느냐
 몰읍니다,너의부모국은원턴강이라
 원턴강은엇씨하야감니가
 네가원턴강을갈여거든
 백사가의별충당우에고좌하야
 글닉는동영이잇스니,그동영의게차저가서
 문의하면,소망을달성할수잇슬것이다
 서턴강가의백사가에별충당을차저가서
 문외에서종일토록서잇다가
 날이일모하니울성안에들어가서
 과객이덴김니다하니
 청의동자하나이나오면서,누구임니가뭇거늘
 나는오날이라는사람입니다
 저도령님은누구시임니가
 나는장상이라고하는사람인데,옥황의분부가
 여기안저언제든지글만넘어야한담니다

그런데당신은무슨일로이곳에오셨습니까
부모국이원턴강이라하니
그곳으로가는길입니다.오날이가대답하니
그청의동자가친절헌말로
오날은날이다-점을엇스니
올나와서이곳에유숙하얏다가
밤새거든찌납시오.올나가서치사하고
백씨부인맛난사실을말하며
길인도하야주기를간청하니
가다보면연화못이잇는대
그못가에연꽃남기잇습니다
그연꽃남게물으면알길이잇슬것임니다
한데원턴강에가거든
웨,내가밤낮글만읽어야하고
이성밖그로외출치못하는지
그리유를물어다가전하야줍시오
날이새여찌나가다보니
과연연화못가에연꽃남기잇더라
연꽃남글보고,연꽃남아말좀물어보자
어데로가면원턴강을가느냐
웬일로원턴강을가는고
나는오날이라는사람인데
부모국원턴강을차저가노라
반가운말로구나
그러면나의팔자나알어다주시요
무슨팔자이뇨
나는겨울에는옴이뿌리에들고
정월이나면몸중에들엇다
이월이되면가지에가고,삼월이나면꽃이되는대
상가지에만피고,달은가지에는아니피니
이팔자를물어주소
그리고원턴강은가다보면,청수아당가에
턴하대사가누어서구을르고잇슬터이니가
그대사에게물으면,조흔도리가잇슬것이요
결별하야청수아당가에일으러
이리저리구을르고잇는대사를발견하고
인사를통성하야,경과한사실을토포하고
엇찌하면원턴강을차저갈수잇는지

인도하야줍소서,오날이가말하니
길인도하기는어려웁지아니하나
나의부탁도하나드려주시요,대사가말하거늘
그러면그부탁은엇편것임니가
그것은달음아니라,달은베암들은
야광주를하나만물어도
롱이되여승턴을하는대,나는야광주를
셋이나물어도롱이못되고잇스니
엇편면쫓켓는가무려다주시요
이리하야오날이는그대사의요구에쌀아서
그등을타안져다
대사는오날이를등에태워서
헤엄을치고그청수아당을넘겨준후에
가다보면매일이라는사람을만날터이니
그사람에게무려보시요
여기서작별하고가다보니
매일이는거번의청의동자모양으로
별층당우에안저,글을읽고잇더라
인사를맞치고,부모국원턴강의
길인도를청하니,쾌로히승락하고
원턴강에가서,자기의항상
글만읽고잇는팔자를무려다달나하고
오날이에게부탁하다
그곳에서일야를유숙하고작별할새
가다보면시녀궁녀가락루를하고잇스리니
그들에게물으면,소원을성취할것ियो
매일이가이리말하다
그리하야앞으로앞으로가다보니
아닌게아니라시녀궁녀가늦겨울며잇는데
그리유를무르니,그리유는달은게아니라
전일에는그들이하날옥황시녀엿섯는데
우연이득죄하야,그물을푸고잇는바
그물을다-퍼내기전에는
옥황으로올나갈수가업는데
아모리풀야하야도푸는박아지에
큰구멍이뜯버저잇기싸달에
죽음도물을밧그로퍼낼수가업는것이였다
그리하야,갓치조력하야주기를

오날이에게청하니,오날이는
옥황의신인이못푸는물을,어리석은인간
으로서엇지풀수잇는야고사퇴를허다가
정당풀을비여모게하고,베게를맨들게하여
박아지의구멍을막고거게다가송진을녹여서
그막은곳을칠해야튼튼히잘르고
정성을다하여옥황상제의게축도를한후
물을푸니,순간에그물이말너붓거늘
시녀궁녀사지에서소생헌듯이광히하며
백배사례하고,오날이가청하는원턴강의
길인도는동행하면서해야주겟다고하여
얼마쯤오날이를데리고가던이
엇편별당이보이엿다,시녀궁녀는
오날이가는곳을행복도게해야달라는의미의
축도를하며제갈길로가바리엿다
별당을향하여그주위에는만리장성을싸엇고
원문에는문직이가파수를보고잇섯다
문을열어달나하니,그것은누구이나
나는인간세상오날이라는처녀이요
무슨연고로이곳에왔는고
이것이나의부모국이라허니찾저왔소
문을열어줄수업노라
문직의거절은넘우나냉정하얏고
가련헌오날이에게는최후의절망인것갓치하여
하날이문허지는것갓텃다
오날이는용기의최의일발까지를상실하고
안전이암연하여부모국문전에혼도하얏다
지면에복와한오날이는기백만리인간
원방에서처녀단지혼자외로히
원갓산과원갓물을건너웬고생격그면서
부모국이라고이런곳을차저왔는데
이러케도박정하게하는구나
이문안에는내부모잇슬연만은
이문압헤내여기왔건만은
매일이는소원성취한다더라만은
원턴강신인들은넘우무정타
비인들에홀로이들든지처녀
천산만하님을적에웨로운처녀

부모국의문압헤웨로운처녀
부모는다보왔나,내할일다하얏나
강님갈싸무엇할이,여기서죽자
팔자부탁어씨할이
모든은헤어씨할이
박정헌문직이야,무정헌신인들아
그리웁던어머님아,그리웁던아버님아
오늘이논의식적무의식적으로이리말허며
연하야늦겨우니,돌갓튼문직이의염통에도
눈물의동정이울어났다
문직이가부모궁에올나가서,이런사실을주하니
발서부모궁에서도알고잇섯다
그비명허는소래는
부모에게까지흘러갓든것이다
그리하야문직이가
저의책임으로써문을못열어주엇습시다만은
이사실을엿주어드리려왔습시다허니
오늘발서다알엇다,들어오게하야라
락망의극에잇든오늘이
천만의외의히보에숨인가하며
부모의압헤를가니,아버지허는말이
엇썬처녀가웨이곳에왓느냐하니
학이새짓속에서살든새부터
지금까지의지난일을모조리말하야들니엿다
부모가괴특하다고칭찬하며
자괴자식이분명하다고하얏다
그리하야또하는말이
너를나흔날에옥황상제가우리를불러서
원턴강을직히라고하니
어느영이라거역할수업서,여기잇게되엿스나
항상너의하는일을다보고잇섯스며
너를보호하고잇섯다
이리하야구경이나하라고허니
만리장성둘러싸흔곳에
곳곳마다문을열어보앗다
보니춘하추동사시절이모다잇는것이엇다
구경을쫓치고,오늘이가
또다시온길을돌아갈여할새

거번의모든부탁을말하니,부모하는말이
장상이와매일은부부가되면
만년영화를누릴것이요
련화동은웃가지의꽃을짜서
초면하는사람의게주어버리면
다른가지에도만발할것이며
대사는야광주를일개만물엇스면할태인데
넘우욕심을만히가져서,삼개를물어바리니
룡이못된것이다그러니초면자에게
두개를바터서주어버리면,곳룡이되리라하고
너도그야광주들과련화를갖으면신녀가되리라
돌아오는길에매일을맛나
부모국에서들은대로말하니
장상이잇는곳을몰은다거늘
내가데려다주마하고,갓치가다가
대사를맛나서도그사실을말하니
야광주들을바터서,오날이에게주어두고
즉서룡이되야,뢰성벽녀과아울너승턴하얏다
다음에연꽃낭을맛나그런말을하니
웃가지를씩씩서즉시오날이에게주다
그러니가지가지마다고흔꽃이피여서
아름다운향내를쏟내게되엿다
다음에장상을맛나니,매일과장상이
부부가되여차세상에만년영화를누리고
오날이는백씨부인을맛나서
야광주하나를선사하야,감사의뜻을표한후
옥황의신녀로화하얏다
이리한오날이는인간에강림하야
절마다덴기며,원턴강을등사하게하얏다